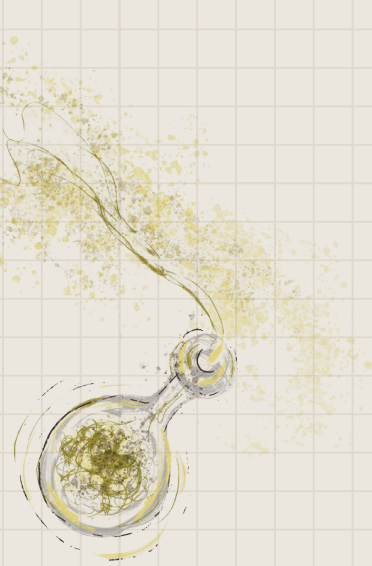




아무도 모를걸!

글 이하영, 그림 김연주 / 책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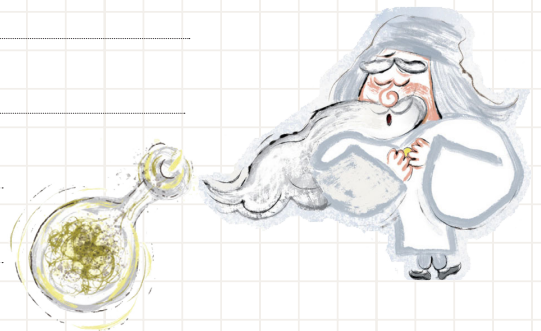
좌충우돌 실수하며 자라는 아이들,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지는 이야기

공을 차기만 하면 골대를 맞추는 아이, 김도윤. 친구들은 축구 경기에서 지면 도윤이 탓을 했어요. 도윤이는 친구들 앞에서 멋지게 골을 넣고 싶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운동장에 나가 열심히 공을 찼지요. 버르던 경기 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운동장으로 뛰어가는데, 갑자기 속이 부글대기 시작했어요. 온 힘을 다해 참았지만, 결국 일이 벌어졌지요. 바지에 큰 실수를 하고 만 거예요. 아홉 살 인생 최대의 위기! 도윤이는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한번쯤 잊지 못할 실수를 하고는 합니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별일 아닌데도 당시에는 눈앞이 캄캄하고 어쩔 줄을 모르지요. 1학년도 아니고, 2학년이 되어서 바지에 똥을 찐 도윤이도 마음속이 무척 복잡했을 거예요. 어디로든 쏙 들어가 숨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에요. 안절부절 못하는 도윤이의 모습을 보면서 킁킁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이야기인 것처럼 친근해요.

독후활동 시작하기

㉠ 신령들은 열매의 냄새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신령이 된다면, 만들고 싶은 열매의 냄새가 있나요? 어떤 열매의 냄새를 만들고 싶은지 적어보고, 이유도 말해 보세요.



Q 도윤이는 학원 화장실 세면대에서 똥 묻은 팬티를 빨다가 세면대가 막혔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께도 말하지 못하고 팬티를 침대 밑에 던져두었습니다. 여러분이 도윤이가 되어 용기 있게 학원 선생님과 엄마께 편지로 사과와 마음을 전해주세요.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면, <다음>을 참고해서 비밀 편지를 만들어 전해주세요.

<다음> 준비물 : 편지 쓸 종이, 양초, 수성물감, 목공용 풀, 붓, 동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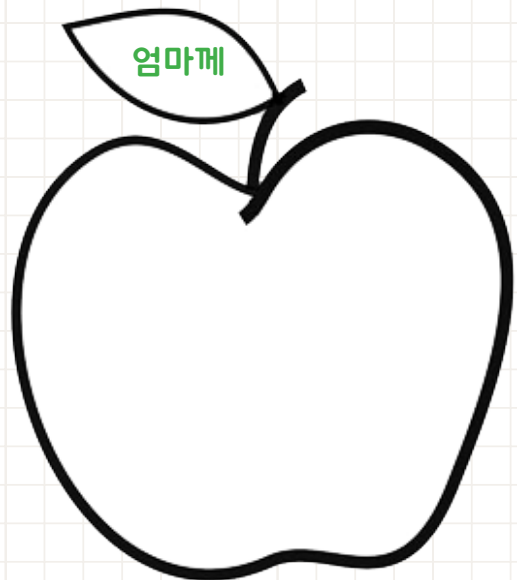
1. 비밀편지를 쓴 후 양초로 글씨 위에 덧칠하세요.
2. 수성물감과 목공용 본드를 1:1로 섞으세요. (여러 가지 색을 만들어 사용해도 좋아요)
3. 1번 편지 위에 2번에서 만든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후 물감을 건조 시킵니다
4. 편지는 동전으로 긁으면 물감이 벗겨지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종이에 양초를 문지르면 코팅이 되고, 목공용 풀과 섞은 수성물감이 건조된 후에는 양초의 왁스성분과 분리 비밀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제 사과를
받아주세요



주제 활동

Q ‘아무도 모를길!’에선 신령들이 도운이를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며 도움을 받았거나 공감했던 책을 소개해 주세요.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을 소개해 주세요. <예시>를 참고하여 간단한 줄거리를 쓰거나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려보고, 이유를 적어 보세요.

<예시>

아무도 모를길!



도운이처럼 부끄럽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
“뭐야, 별 것도 아니었
잖아!” 라고 용기 내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Q 도윤이처럼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이야기가 있나요? 마음속에만 담아둔 이야기를 도윤이처럼 말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남에게 말하기 어렵거나 싫을 때, 아무도 모르게 나만의 이야기를 일기처럼 써볼까요? 방법은 다음 <예시>를 참고하세요.

<예시>

1. 초성으로만 쓰기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김도윤이 똥 썼다]

→ 창ㅂㅇ 보ㄹ, 창ㅂㅇ 보ㄹ ㄱㅅㅇㅇ ㅌㅇㅇ

2. 빈칸으로 남겨두고 쓰기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김도윤이 똥 썼다]

→ 창ㅇ을 보ㅇ, 창ㅇ을 보ㅇ ㅇ도ㅇ이 ㅇㅇ다
